

“세상 변화에 맞춰 교사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대광여고 양수경(오른쪽) 교사가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로부처 교육공헌훈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프랑스 교육훈장 받은 대광여고 양수경 교사

불어 수업 후 실생활 접목·현지 소식 소개 학생들 자연스레 공부에 관심 갖게 도와줘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가르치기만 할 뿐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시대가 달라지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과거에 배웠던 지식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5일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로부처 교육공헌훈장을 받은 대광여고 양수경(여·55) 교사는 장학한 수훈 소감 대신 교육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밝혔다.

지난 주 수훈 소식이 알려지면서 축하 전화를 받고 언론 인터뷰를 하느라 누구보다 바쁜 한 주를 보낸 양씨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 나지 않는 듯 차분한 목소리였다.

프랑스 교육공헌훈장은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 대학 석학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현재는 교육·문화 분야에

공로가 큰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에게 프랑스 정부가 직접 수여한다. 그동안 대학교 수나 문화계 저명인사들이 수훈해 왔으며 고등학교 교사가 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그녀는 지난 3월, 주한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됐다는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를 생생히 기억했다.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을, 그것도 주한 프랑스 대사로부처 직접 받게 된다는 생각에 부담이 컸다. 그래서 대사관이 있는 서울로 가서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사관 관계자는 자신들이 광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대광여고에서 훈장을 받았다.

수훈식 이후 제롬 파스키에 대사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내내 양씨는 ‘내가 왜 훈장을 받게 됐을까?’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했다.

양씨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속 시원한 답변 대신, 솔직한 대답이 돌아왔다.

“프랑스 정부가 일반인에게 주는 가장 큰 훈장을 왜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사관에 구체적인 수훈 배경을 묻는 질의서도 보냈어요. 지난 30년간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그 교문을 진숙하게 여기도록 노력했는데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셔서 오히려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녀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교사의 노력을 강조했다. 추상적인 설명 대신 구체적인 차이를 물었다. 수많은 프랑스어 교사 중 유독 그녀만이 훈장을 받은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라며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교수법을 소개했다.

“첫 번째 원칙은 지난 시간 어디까지 배웠는지?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진도를 물어보는 교사는 지난 수업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각 반별로 어디까지 배웠고, 어려워하는 부분과 학생을 표시해놓고 수업을 시작해요. 두 번째는 실생활에 유용한 수업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화 용어를 배웠다면 직접 현지인과 통화하며

자신이 배운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문과 잡지를 구해 그 곳 소식을 보여 주고 있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화지만 학교 교재는 그러한 것을 모두 반영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이 좋아할 프랑스 이야기를 찾아 전해주면 자연스럽게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죠.”

조선대학교 불어불문학부에서 공부하던 당시,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조유현 교수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그녀는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었다. 헌신적인 스승을 보며 제자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녀는 고인이 된 스승처럼, 훌륭한 제자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학생이지만 언젠가 제 동료이자 스승이 되어줄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요즘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지시는 잘 따르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어려워해요. 교사로서 점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넘어 제자들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저를 기억해준다면 훈장보다 더 기쁠 거 같아요.”



귀농인·원주민 문화로 어울리다

전남문제재단, 강진달빛한옥마을 프로그램 진행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주민과 그곳에 예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이 문화를 통해 소통해 주목받고 있다. 강진달빛한옥마을로 이주한 주민 20여명과 월남마을 원주민 25명이 참여하는 ‘월남 떡과 수경 씨 어울려 놀다’ 프로그램이 29일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재)전남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하는 무지개다리사업 일환으로 강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공동체인 ‘문화도끼’ 회원과 작가로 참여하는(예비)사회적 기업 ‘잇다’가 주관해 마련됐다.

‘월남 떡과 수경 씨 어울려 놀다’는 참여자의 옛 사진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자서전 만들기, 마을 지도 만들기, 팻말줄 영화상영회 등 4개월간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강진달빛한옥마을을 주민과 월남마을 주민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담긴 자서전과 사업 과정이 담긴 결과물은 11월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29일 첫 모임에서 자기 소개와 마을 지도 만들기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날 참여한 김영성(강진달빛한옥마을 이사)씨는 “그동안 가까이 살면서도 왜 단절된 채로 불리는지, 왜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를 왔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됐다”며 “우리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웃주민과의 소통을 필수라며 오늘 이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풍암동 청소년 방범대’ 발대식

중·고교생이 주축이 된 ‘풍암동 청소년 방범대’가 지난 28일 풍암동 주민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마을 순찰도 나서는 등 안전하고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광주 서구 풍암동 지역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청소년 방범대 소속 학생들은 주말과 휴일에 경찰관과 함께 마을 순찰을 하거나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받을 예정이다.

이아셀 (17·광주여상 1학년)양은 “평일에는 학업에 전념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방범대 언니, 오빠, 동생들과 마을 곳곳을 돌며 곤경에 처한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풍암동 청소년 방범대는 풍암중, 금당중, 운리중, 대성여중, 풍암고, 동일전자정보고, 대성여고, 동성고, 송원고, 설원고, 광주여상, 전남도립대, 호남대 학생 45명으로 꾸러졌다.



‘아너소사이터티’ 29번째 익명 회원 탄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터티’에 29번째 익명 회원이 탄생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9일 50대 남성인 황후 5년간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2000만 원을 먼저 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U대회 입장권 1억원 구매 약정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는 29일 광주시장에서 광주U대회 입장권 1억원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

약정식에는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왼쪽) 광주시장과 유신열(오른쪽)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전 세계에 광주의 활력과 품격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입장권 구매와

익명 회원 탄생

익명의 기부자는 광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전국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은 839명, 광주는 29명이 가입했다. 이들 중 익명 가입자의 수는 전국 103명, 광주 4명이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차주열(전 대한전통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한국도디자인 대표이사)·김재순씨 차남 국한 임병만·김영옥씨 장녀 지은양=7월 4일(토) 오전 11시 50분 라세스 타워딩함.
- ▲김재봉·김순이씨 차남 일호군 김정민·이순복씨 삼녀 수양양=7월 4일(토) 낮 12시 30분 영광 영빈웨딩홀.
- ▲강대철·박현숙씨 장남 새한별군 김선우·유인숙씨 장녀 현희양=결혼식 7월 11일(토) 오후 2시 서울 범일종합차사사장 2층 예식홀.

-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아간보호. 062-959-234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을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중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동창회

- ▲광주 사대부중 제4회(회장 전성수) 동창모임=7월 4일(토) 오후 7시 금남로 5가 목포식당 062-528-7875.

- ▲살레시안 가족청담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반되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 수강생=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더쉽과 스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부·자

- 격증반), 음악치료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북구 두암2동 무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3606-0230.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분. 062-233-0468.
- ▲각자단체의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

- 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 수강생=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탭댄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반인·창업예정인, 자격증반 수시 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 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062-265-9337.

부음

- ▲김상훈씨 별세 기원·운영·은정·정희·수연·지연씨 부친상=발인 30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 ▲강선홍씨 별세 봉구·경호·은영씨 부친상=발인 7월 1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삼가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弔

301호 故려덕철 님 (남/75세) 子/子: 박성호·민경진, 경민·김은경 女/婦: 박경희·박종심 *발 인: 6월 30일 *장 지: 영락중앙 *연락처: 227-4382	402호 故민현순 님 (여/77세) 子/子: 정경민·이창희 女/婦: 정애연·문기영, 재희/하석기 *발 인: 6월 30일 *장 지: 효행동 선영 *연락처: 227-4314
101호 故려찬성 님 (남/69세) 子/子: 최명길·이주연, 명은 女/婦: 최성희·김승환 *발 인: 6월 30일 *장 지: 영락중앙 *연락처: 227-4385	102호 故김영준 님 (남/82세) 子/子: 김석호·이창희, 석진/조명란 女/婦: 김효은/최명규, 은영·양양순 *발 인: 6월 30일 *장 지: 영락중앙 *연락처: 227-4386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